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April 27, 2017 Vol. 575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서 장학순 목사와 4명의 토론자가 교단의 동성결혼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동성결혼 문제 앞둔 UMC, 한인의 선택은?

UMC 한인총회 특별 토론 시간 마련해

연합감리교회(UMC) 한인총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라는 주제로 LA공항 힐튼호텔과 LA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둘째날에는 교단의 동성결혼 정책에 관한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예배와 집회, 성경공부, 워크샵, 소그룹 모임 등 다양한 순서가 있지만 주제토론은 단 한 번, 동성결혼 문제를 놓고 열렸다. 그만큼 한인총회가 위기감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 김광태 총회장은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 교단에 소용돌이가 내지는 태풍이 일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분열까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들의 입장을 정리해 교단에 목소리를 내고자 이번 토론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UMC는 교단법상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주례하는 목회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김광태 총회장

또, 지난해에는 레즈비언인 캐런 올리베토 목사가 서부지역 총회의 감독으로 선출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올리베토 목사는 현재 이 문제로 인해 총회 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중이다. 4년마다 총회를 열고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2020년 총회에 앞서 오는 2019년에 동성결혼 문제만을 다룰 특별총회까지 계획 중이다.

이날 토론에서 기조발제한 장학순 목사(UMC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는 교단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첫째는 현재의 장정을 유지하는, 보수복음적 입장이며 둘째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진보적 입장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반대하는 측으로 인해 교단의 분열은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셋째는 '잠정적 포용론'으로 양쪽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보적 그룹과 보수적 그룹이 한 교단으로서 리소스를 공유하되 동성결혼 문제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한 지붕 두 가족 모델이다. 그러나 교단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마지막은 '지속적 포용론'인데 이는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통합론이다.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입장이 분명한 교회들은 교단을 떠나고 85% 정도의 중도 세력만 교단에 남아 서로를 포용하는 것이다.

장 목사는 "한인교회의 경우는 교단에 남아 독립연회를 구성하거나 독립된 감리교단을 만들어 분리하는 등의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기자

통일 임박했는데 선교 전략 있나

통일선교 전략 나누는 컨설테이션 열린다


지난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길 목사가 행사를 설명하고 있다.

통일선교전략협의회(The Council for Unified Korea Mission Strategy)가 오는 5월 15일, 16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일선교 컨설테이션을 연다.

이 행사는 한반도 통일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지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기 전 한인교회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협의회 이사장인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는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선교라고 하면 중국 내 탈북자를 돕거나 북한 내부를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통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통일시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통일이 되면 휴전의 당사자였던 UN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신탁통치를 약 2년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간 동안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흔히 생각하듯 통일이 되면 바로 북한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상일 뿐 현실적으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통일선교전략협의회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국제사회의 여러 대응 플랜에 맞추어 선교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12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의 김요한 사무총장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통일 후 사역을 교회 설립이나 전도 등의 국내적 사안으로 봐 왔지만, 사실 국제사회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선교전략협의회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력하는 KRIN 글로벌(Korea Reconciliation Initiative & Network Global)의 미주 한인 지부인 KRIN OK(Overseas Korean) USA와 동일한 단체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브라질, 유럽에서 KRIN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제 사회의 정세에 발 맞추어 가장 실현 가능하고 빠른 방법으로 북한 개방시 복음화 방법 전략들을 연구해 왔다.

이번 컨설테이션에서 통일선교전략협의회는 KRIN이 제시하는 통일 후 선교 전략과 함께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줄 계획이다. 특히 KRIN이 지난 수년에 걸쳐 수립한, 구조-안정-회복-재건이란 4단계에 맞춰 설정한 12가지 통일선교 사역들을 소개하고 북한의 14개 도,직할시 거점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명시한 구체적 사역 매뉴얼도 공개한다. 예를 들어 북한 개방시 약 5백만 명으로 예상되는 난민들을 어떻게 교회가 품을 것인지, 북한 각 지역은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지, 교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해 갈 것인지,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등 총체적인 분야를 다루게 된다.

이 행사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714-484-0042

김준형 기자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8am~6pm, 토: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7월 15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의 나라"

은혜한인교회 창립 35주년 특별 공연
6월 2일부터 4일까지


과거 열렸던 뮤지컬의 한 장면

2017년 6월 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3일간 은혜한인교회 창립 35주년 특별 공연으로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 나라(Eternal Life 2017- The Kingdom of God)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복음의 스토리를 초대형 뮤지컬 안에 녹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2년 이래 이번이 5회를 맞이하는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는 매번 다른 주제(영생〈2012〉, 치유와 회복〈2013〉, 구속〈2014〉, 성령〈2016〉, 하나님의 나라〈2017〉)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보통 3일간의 공연에 6천여 명이 관람하는 등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뮤지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대본의 상당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 영원한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고 새 생명을 이루는 "성령의 능력"에 맞추어 쓰여졌다.

이 뮤지컬을 준비하는 창조문화선교단은 고문에 한기홍 목사, 국장에 엄기석 장로, 극본 및 감독에 김현철 전도사, 팀 마더에 이재정 권사, 조연출에 이봉선 집사, 공미연 집사, 행정팀장에 최지영 집사, 안무에 이수희 집사, 지미옥 집사, 음악 감독에 최은원 집사, 무대 감독에 고유민 집사, 소품 팀장에 샐리 황 집사, 의상 팀장에 소피아 최 권사가 사역한다.

또한 배우 부문에는 LA 최고의 복음성가 가수로 쓰임 받고 있는 이정열 자매, 성악가 최은원 집사, 박동진 전도사, 권혜연 사모 등 성악가와 CCM 가수가 함께 구성되어 팝과 성악을 넘나드는 뛰어나고 재능 있는 보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민사회 15여 개 교회에서 재능있는 배우들이 함께 모여 초교파 뮤지컬 선교단인 창조문화선교단을 이루고 있다.

올해에도 영어 동시 자막이 있기에 2세 자녀나 다민족 친구들과 관람할 수 있다. 또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년층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즐기고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 제작되어 있다. 초대형 스크린에 무대 배경을 띠워 설치 미술과 동영상이 함께 움직이는 3D 형식의 연출에 1층과 2층 무대에서 250여 명의 출연진이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이 뮤지컬은 그 자체로도 감동을 준다.

이에 더해 입체적인 조명 기술과 브로드웨이 수준의 의상과 분장은 뮤지컬의 맛을 더해 준다.

이 뮤지컬은 김현철 감독이 4년여에 걸쳐 극본과 가사를 완성했으며, 작곡에는 정봉화 씨가 30곡 전곡을 작곡했다. 현대의 팝송 스타일과 클래식 오페라와 성가 스타일의 곡들이 모두 섞여 있어서 다양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극본이 완성된 것이 특징이다.

즉, 2세와 1.5세 그리고 타민족 모두 함께 관람해도 누구나 쉽게 음악을 이해하도록 창작되었고, 가사는 성경의 4복음서를 토대로 했다.

뮤지컬 극의 길이는 약 2시간 10분이다.

한편, 창조문화선교단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배우들과 스탭들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21세~70세까지의 재능과 열정이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며 자유곡 1곡을 준비해서 간단한 오디션을 봐야 한다.

문의: 김현철 전도사
213-215-4662
이메일: ark1kim@gmail.com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소망소사이어티 감사한인교회에서 포럼

치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소망소사이어티가 소망 치매 포럼을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4월 15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한인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그날, 치매'라는 주제로 제 2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약 4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소망 치매 포럼은 나이 드신 연장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를 둔 가족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소망 치매 포럼은, 소망케어교실의 강사들이 나와 모든 참여자들과 함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손동작을 실연하는 시간과 소망소사이어티 사역을 소개하는 홍보 동영상을 시청함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어 테너 김성봉 씨와 소망중창단의 소망의 노래 합창, 테너 김성봉 씨의 특송, 유분자 이사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다니엘 장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치매예방이란 주제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매 증상을 많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인지능력저하의 진행과정에 대해 강연한 이윤심 심리학 박사는 정상적 노화과정 진행과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치매에 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란 주제로 강연한 패티 모튼 OC 알츠하이머협회 부회장은, 치매 증상에 이르기 쉬운 위험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치매 위험이 있을 경우는 주치의를 먼저 만나볼 것을 권면하며 OC 알츠하이머협회에서 줄 수 있는 도움과 자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어 치매 환자를 둔 진명숙 씨가 사례발표를 해 주었고, 치매환자 간병인들을 위한 조언에 대해 강연한 김 에린 임상사회복지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질병인 치매는, 가족들이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을 이해하고 환자를 대해야 하며, 간병인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리 팸 씨의 사례발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후원사 중 하나인 Chiron Total에서 나와 추첨을 통해 1명에게 2,000불 상당의 치매 검사 진료권을 제공함으로 끝을 맺었다.

한편 4월 16일 전국 '전국보건의료 결정의 날'을 맞아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여 자신이 의료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무료 배포하였으며, 포럼장 근처에 마련된 관련 단체들의 부스에서는 참여자에게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에 관한 한인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5월 가정의 달 추천도서
JAMA와 GLDI의 설립자인 김춘근 교수의 아내 김성매 권사의 삶, 자녀교육
그리고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기록한 책!
Amazing Grace
어메이징 그레이스
Amazing Grace
$15/BOOK
책판매 이익금 전액은 JAMA로 헌금되어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JAMA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MAZING GRACE 김성매 지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는 분들,
하나님의 비젼을 품고 이뤄드리기 원하는 분들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 QT LIFE, 김은애 권사 /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독도서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 Christian Marriage & Family Ministry(CMF) 대표, 김철민 장로 /
〈졸업 혹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베스트셀러 [와이미]의 영문판
WHY ME?
한국 현대사, 60-70년대 미국 유학생으로서의 삶, 40년간의 미국 대학 교수로서의 삶, 두 번의 암 극복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을 기록한 영문책. 기존 한글 [와이미]에서 대폭 보완되었습니다.
김춘근 / JAMA Publishing / $15
2 CHRONICLES 7:14
Jama 4201 WILSHIRE BLVD STE312 LOS ANGELES, CA 90010
T323.933.4055 F323.933.4059 www.jamaglobal.com info@jamaglobal.com



제5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예수님의 효 정신 우리에게 넘치길

효사랑선교회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효사랑선교회가 성경적 효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제5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22일 훌러톤장로교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50여 명이 다양한 상을 수상했으며 상에 따라 상품을 선물로 받았다.

이번 주제는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었으며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는 "우리의 꿈인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 청소년들이 효에 근거해 바른 가치관, 즉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면 바르게 성장할 것"이라면서 "예수님이 보여 주신 효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넘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1부 예배, 2부 축하공연, 3부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공연에서는 CTS 아이드림 콰이어, 딜리버러스 앙상블이 공연했다.

시상식에서는 그림에 윤 다니엘 아트갤러리 회장, 글에 임영호 목사(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전 회장)가 각각 심사평을 전했다.

계한교 목사(OC원로목사회장), 데니스 한 사장(가주교육신문), 김영대 목사(효사랑선교회 이사장), 이호우 목사(OC교협회장) 등이 상을 수상자들에게 수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글짓기 대상을 받은 프리실라 신 양이 직접 작품을 낭독하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한인 정치인들이 참석해 수상 학생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남상국 목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촬영했다.

낫 놓고 ㄱ자 몰라도 돼

남상국 목사 계시록, 아가, 다니엘 교재 출판

'낫 놓고 ㄱ자 몰라도' 그림으로 이해하는 성경 교재 개발로 화제인 남상국 목사(오픈바이블교회)가 요한계시록과 아가서, 다니엘서 교재를 출판했다.

40여 명의 교계 내빈과 후원자들이 지난 21일 OC의 한 식당에서 출판기념회 겸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사역의 출발을 다짐했다.

남상국 목사는 "64세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해 성경에 미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삶이 너무나 기쁘다"면서 "6월달에 LA를 시작으로 8월 뉴욕과 뉴저지, 10월에는 한국과 일본에 집회가 잡히고 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특히 귀한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남상국 목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출판할 예정이다.

문의)949-285-7242

danaxusa@yahoo.com



청년부 전도집회 Friend's Night이 OC한인교회에서 열렸다.

OC한인교회에서 청년 전도집회

메시지와 퍼포먼스, 만찬, 선물로 섬겨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담임목사)에서 제 1회 새벽이슬 청년부 전도집회 Friend's Night이 지난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렸다.

이번 집회는 청년들의 지친 삶에 새 힘의 날개를 달아주고, 영원한 생명의 날개를 달아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심현석 목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 교회 청년들이 "죄 (앉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 교회 권사들이 청년들을 위해 직접 만든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에 충분한 식사였다.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풍성한 선물도 지친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교회 주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문의) 청년 담당 심현석 목사 714-337-6669

나성제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임직식



나성제일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임직식을 거행했다.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 및 임직감사예배가 열렸다.

말씀사경회 마지막 날 주일 설교에는 산호세 뉴비전교회 원로인 이지춘 목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전도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그는 "만약 생애 마지막 한 번의 설교를 한다면 전도를 설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죽을뻔한 후 남은 생을 전도하며 살기로 결단했다.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는 전도 서적을 집필해 10만권을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오후에 드려진 임직감사예배에서는 신피터 장로, 강태성 최현수 안수집사, 김부기 박한문 이현근 명예안수집사, 엄정희 이재경 장경애 장풍옥 권사, 박윤경 장희자 명예권사가 임직했다. 설교는 오렌지힐교회 백창호 목사가 '오점없는 만점인생'이란 제목으로 전했고 파사디나 한길교회 명종남 목사가 권면, LA 성시화운동 상임본부장이며, CCC 미주훈련원장인 이성우 목사가 축사, 진리의등대 발행인 정은표 목사가 축도했다. 권 셸비 기자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5〉

한 여고생의 선교 도전과 영향력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는 작년 5월에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K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퍼포먼스 페스티벌을 관람했다. 졸업생들이 자신의 장기 및 재능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인 교사들이 그해의 Mr. K와 Miss K를 선정하는 행사였다.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멋진 노래, 연주, 민속춤, 마술, 기계체조 등 다양한 자기 재능을 선보였다.

시상 시간에 맨 마지막 그랑프리를 차지하며 그 해의 Miss K가 될 여학생을 발표했다. 한국계의 여학생이 영광의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모든 관중들이 서서 환호를 지르며 축하할 때 나에겐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 학생은 탁월한 재능을 펼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퍼포먼스를 한 것도 아니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10분동안 마이크 하나를 잡고 강단을 이리 저리 걸어 다니며 "감사"란 주제로 자기의 작은 경험을 조용히 이야기 하고 내려 간 것이 전부였다.

이야기의 내용은 지난 11학년 시절 여름방학 2개월간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지역에 가서 선교 봉사 활동을 하며 같이 생활했던 시리아 난민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였다.

전쟁과 피난의 공포와 고난 속에서 그 어린아이들은 다 기쁨을 잃었다 했다. 이 여학생은 그 아이들을 보살피며 영어도 가르치고 놀이 친구도 되어주는데 통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고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워 눈물만 흘렸다 한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의 잃어버린 미소를 찾게 해 주세요. 저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하고 기도했단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다가 'Thanks'(감사)를 설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단다. 나는 부모가 있는 것이 감사한데 그 아이들 중에는 전쟁으로 또 행방불명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었다. 나는 건강을 감사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포탄으로 불구가 된 아이, 소아마비, 구개구순열 아이가 많았다고 한다. 나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다 먹는데 그 아이들은 하루에 한 덩어리 빵과 한 그릇 스프가 고작이었다.

'내가 감사하는 내용들이 그 아이들에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가르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엉엉 우는데 한 아이가 어깨를 만지며 "선생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리고는 웃었단다.

감사를 하면 웃음이 생긴다는 이야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그것을 불평하며 산다는 것. 감사를 찾으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이야기. 청중들 모두가 숨죽이며 그 이야기를 듣던 모습이 떠오른다.

필자는 목회자로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던 차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청소년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방으로 직접 자기를 희생하며 찾아가는 사랑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깊이 깨달았던 시간이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하륜 군

선교사 자녀 하륜 군 선교지에서 사고 당해

태국 하태민 선교사의 둘째 아들 하륜 군(11학년)이 큰 사고를 당해 SON미니스트리(대표 김정한 선교사)가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4월 23일 주일 아침 하륜 군은 푸리앙교회 옆에서 사고를 당했다. 유리가 깨지면서 오른팔이 깊이 베여 힘줄, 신경, 핏줄이 끊어졌고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는 태국 돈으로 274,235 바트, 한국 원화로 1천만 원 가까이 나왔다. 돈이 없어 일부만 지불한 후 나머지는 할부로 내기로 했고 현재는 병원비가 싼 국공립 병원으로 옮긴 상태다.

엄지는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이며 움직이지 못한다. 약지는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륜 군의 어머니이자 하 선교사의 아내인 신정연 선교사는 작년에 받은 복강자궁적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지난 2월 한국에 들어가 조직 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머물고 있는 중이다.

하 선교사는 1998년 태국 선교사로 부임해 신학교 사역과 함께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 전도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태국 북부 미얀마 접경 지역인 메홍선 지방에 있는 케런족 교회를 협력 지원하고 있고 태국 북부 펫차분 왕뽕 지역에 있는 현지인 교회를 협력 지원하고 있다. 소속교단은 예장(합신)이며 GP선교회 소속이다. 태국 연락처는 전화 66(국가번호) 83-839-8787이다.

SON미니스트리는 하륜 군의 치료비를 모금하고 있다.

수표 작성시 Pay to order: SON Ministries / 보낼 주소: 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 메모란: 하륜치료비

문의) 714-350-6957



뮤리에타한인장로교회 남여선교회가 한국학교 후원을 위해 골프대회를 열었다.

뮤리에타장로교회, 한국학교 후원 위해 골프대회

뮤리에타한인장로교회 남여선교회가 교회 산하 뮤리에타한국학교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17일 전교인 골프대회를 열었다.

이 학교는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한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어 한미 양국에 더욱 유능한 인재로 키우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요즘은 한류의 영향으로 미국인 학생들도 등록하는 등 지역사회 섬김을 감당하고 있다.

권 쉘비 기자

La Mirada Garden Florist
라미라다 가든 꽃집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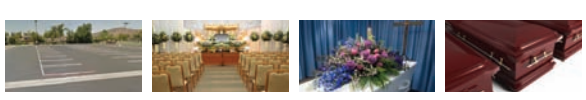
리스장의사가 커뮤니티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리스장학생 모집

리스장의사가 반이민 정책에 힘들어 하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모든 한인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리스장의사와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알리고자 장학금을 준비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등 사회지도자들의 추천장과 학생 본인의 현재 상황, 꿈과 희망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한 학생당 $500, 20명에게 총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자격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한인 학생
이메일접수처 HR@leesmortuary.com
접수기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발표 6월 5일 개별 통보
지급일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지급장소 리스장의사 City of Orange 본사
홈페이지 www.leesmortuary.com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1000대 동시주차 규모의 넓고 편리한 파킹 / 아름다운 채플 / 깔끔하고 안락한 분위기

시카고 스미스 코코란
185 EAST NORTHWEST HIGHWAY, PALATINE, IL 60067
아틀란타 리장의사
4067 INDUSTRIAL PARK DRIVE NORCROSS, GA 30071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6-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요한복음 14장은 천국에 대한 비전을 일깨워 주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천국소망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1-3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신약성경 중에서는 내세의 궁극적 소망이 되는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죄에 직접 전가된 후손의 자격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통에 시달리며 영혼은 물론 정신과 육체, 생활전폭에 있어서 날마다 지옥의 그림자 속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기대가 어긋나는 실패로 인한 절망, 질병에 대한 고통, 모든 삶의 꿈이 허물어져 가는 고통,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분복을 얻어 누리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며 쫓기며 살아야 하는 괴로운 입장들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당하는 세상조건에서의 입장이 아닌 그보다 더 힘겨운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인 고통보다는 인생고에 시달리는 오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으로 신령한 다른 세계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2-3에서 말씀하시는 내세소망은 이 땅 위에 육체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는 곧 하늘에 영원한 처소가 마련된다는 말씀이고 그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반드시 거쳐야만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듯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어조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빌립의 질문은 상당히 어긋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고 과거완료형으로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아직 보질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14 이하에서 소개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원하셨을 때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입장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약식세례입니다. 원래는 물 속에 몸을 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임을 깨닫고,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박혀서 죽어 물 속에 장례 치루고 이제부터는 내 입장에서가 아닌 예수님 입장의 신앙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례받는 참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은 형체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심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하셨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배웠습니다. 위(位)는 세 분이 달라도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몸이 하나입니다.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인식을 바로 시키시기 위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날한시에 나타나신 장면은 마태복음 3장 밖에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2:6-8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10 이하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의 입을 통해 증거된 말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말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증거된 말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으로 깨닫는다면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이후부터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입장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증거하시면서 자기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12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믿고 구원 얻게 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도해서 하늘나라로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얻어 성령받은 사람들에 의해 땅 위에 천국으로 가는 정거장 역할을 하는 교회를 세울 것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18-19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교회와의 직선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못해서 책벌을 받으면 천국에도 그대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곧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 우리가 복음의 제물이 되고 땅 끝까지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통한 봉사로 진실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13절에서"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땅 끝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깨닫게 되어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위해 생애를 바쳐 헌신 봉사해야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장받았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위한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현세의 삶을 위해, 육신의 즐거움과 안락함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에 헌신하며 필요한 부분을 구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하셨습니다.

지혜있는 사람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장래에 이 선교라는 사명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선교의 제물로 열납되고 선교에 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몫에 서둘러 참여하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Since 1999

www.e-nca.org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가을학기 학생모집 K-9th
썸머 스쿨 6/5(월)~7/28(금)



New Covenant Academy
Now Available On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18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재단에서 풀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

**나의 모습을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 **행복재단의 풀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 컴퓨터와 영어능력 있는 분
  - 재능을 전수 및 기독상담 봉사하실 분
  - 관절염 환자 한약 분 30분 무료(싯가 $80.00) 선착순 배부(건강원 기부)
  - 뱅크럽시 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Chapter 7 변호사 비용 $350.00)

행복재단(Be Happy Foudation)
Tel.(213)545-4787(오후1시~4시)
981 S. Western Ave. #300A, LA, CA 90006
email:bhfhelp@gmail.com

부 교역자 청빙

L.A 한인타운에 웨스턴과 3가에 위치한 올리브나무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에서 아래와 같이 부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수석 부목사 1명 (교육, 전도)
전도사 2명 (한어 청년부1명), (어린이부 1명)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 dsbio@yahoo.com (이력서 1장만 보내시면 됩니다)
기타문의: T.(213)300-9762

예배안내

주일 성인 예배	주일 어린이,청소년 예배	목요예배
1부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7시
2부 오전 11시	오후 1시	
3부 오후 1시		

올리브나무교회

담임목사 청빙

시드니 새순장로교회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도에 설립되어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호주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말씀으로 제자를 바로 세우고, 기도에 전념하며, 선교와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비전 아래 영적 부흥과 새 세대를 세워나가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1. 학력 : 본 교단이 인정한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총신, 고신, 합신, Christ College(P.T.C.), 미주 총신 등)
2. 연령 : 만 45세 이상
3. 경력 :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담임목회 경력
4. 이민교회 경험 및 영어 가능자 선호
5. 호주에서 목회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2. 졸업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학위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자기소개서(신앙 및 성장 배경, 목회 소명과 목회 경험 등 포함)
5. 목회계획서 :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 지원 동기 등(A4용지 4매 이내)
6.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2편(CD 또는 웹사이트(Youtube 등) link
7. 존경하는 분의 추천서 2통(봉인)
8.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주보(4주간)

서류제출 마감일 : 2017년 5월 13일

제출처(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우편 : Sydney Sae Soon Presbyterian Church PO Box 4871, North Rocks NSW 2151, Australia
- Email : chungbing@saesoon.org

기 타
- 제출서류는 우편과 Email 로만 접수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www.saesoon.org
시드니새순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선 줄로 착각하는 신앙생활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얼마 전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영애 씨가 향년 66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기사를 읽었다. 배우 김영애 씨는 5년 전부터 췌장암 판단을 받은 뒤 수술 등 치료를 통해서 당시 완치판정을 받았었지만 최근 췌장암이 재발해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췌장암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췌장은 명치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한 일종의 소화기관으로서 각종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하여 장내 음식물을 분해하고, 혈당조절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이다. 특히 췌장에 발생하는 종양은 크게 인슐린 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5-10%)과 소화효소 분비와 관련된 외분비 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90%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엇보다 현대 의학이 날이 갈수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도 아직까지 5년 생존율과 완치율이 한 자릿수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췌장암이라고 한다. 췌장암이 위험한 이유는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율이 10% 이하로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미 늦은 상태로 발견되는 병이 췌장암이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초기 증상 없이 찾아오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이다.

이 말씀은 바울이 본문 앞에서 열거한 예증을 근거로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충고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사용된 "선 줄로"라는 표현은 현재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신앙과 복음에 대한 지식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확신했던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이다.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며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잘못된 신앙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실을 지적하며(5, 8절) 올바른 믿음은 잘못된 확신과 교만이 아닌 항상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내리치며 분노했던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 큰소리 "주여 주와 함께 육에도, 죽은 데에도 가기를 각오 하였나이다" 외쳤던 그가 한 여인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냐" 추궁할 때 "나는 아니라,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노라" 부인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완성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게 된다. 인간적 성품과 지식과 경험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강력한 붙드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된다. 오늘도 본문에 교훈을 생각하며 "하나님 선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해 본다.

알레르기 반응



김 성 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또 다시 올 것이 왔다.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늘 그러했듯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찾아오던 알레르기가 다시 찾아 온 것이다. 아침에 눈을 비비고 코를 풀어야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지만 약이 있어 미리 먹어 두니 예전과 같이 고생을 하지는 않아 고마울 뿐이다. 그러나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재채기가 나오기라도 하면 정말 곤란하다. 한 번은 고개를 돌리는 것보다 먼저 재채기가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정확하게 재채기를 해버린 경험도 있다. 아마 그날 새벽 온 동네 사람들이 나의 재채기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레르기와 씨름을 할까? 알아보니 어떤 사람은 물로 자신의 코를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더 강한 것으로 처방받아 먹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껏 코를 풀고 눈을 비비며 가려움을 해소한다고 한다. 속 시원한 답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많이 들 고생을 한다는 것이다. 알레르기 반응은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실은 이상한 것이 나의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괜찮은 것에도 힘들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봄철의 알레르기는 그래도 약이 있고 그런대로 해결할 만한 길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가? 나에게 침투하고자 하는 죄에 대하여 거세게 반응하며 재채기를 하듯이 나의 삶에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죄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일들도 생각이 바뀌어 버린 것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려니" 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무디어 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12장 15절)라고 말씀하신다. 곧바로 반응하라는 말씀이다.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탐심이면 곧바로 반응을 보이며 탐심을 버려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탐심의 문제만 있겠는가? 많은 죄악의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가?

이 세대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믿음생활이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하고 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신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할 것 들을 제대로 물리치며 바르게 반응하며 살라고 하신다.

세상을 통하여 공격해 오는 마귀의 궤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알레르기 약을 미리 잘 먹어 두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을 미리미리 잘 먹어 둘 때에 나에게 오는 죄악들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며 물리칠 수 있게 될 줄 믿는다. 후에 면역이 생겨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는다. 죄를 민감하게 밀어내고 성령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늘 누리며 생활할 때에 매 순간 콧노래가 나올 줄 믿는다.

과연 그저 버려진 곳에 불과할까요



김 지 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사해'가 그곳입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염분 농도가 너무 강해서 강가나 호숫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를 비롯한 많은 생명체들이 서식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강한 바람은 소금기를 날려 주변 지역을 계속 사막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해를 오래 전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사해 지역'은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보고(寶庫, Treasure Island)'입니다. 사해 지역은 오랫동안 축적된 자연 미네랄 덩어리라 할 수 있는 '사해 진흙'이 널려 있습니다. 이 '사해 진흙'은 질 좋은 의약용품과 화장품의 주원료가 되기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해 지역'은 세계 최고의 청정지역이라 알려져 있는 지중해에 비해서 대기 중 산소농도가 15%이상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 호전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기에 사해 지역 곳곳에 의료센터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관광객들이 일년 내내 북새통을 이룰 만큼 이스라엘의 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사해'는 칼륨, 브롬과 공업용 광물질이 널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종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사해를 주목합니다. 저주받은 곳이라 여겼지만, 사실 사해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별 것 아니라 무관심하게 여겨 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심지어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검증 한 번 받지 않은 채 버려진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또는 운명의 장난이라 정의하며 애써 회피하고 무관심하게 여겨왔던 삶의 영역. 그것은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의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잡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문제'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스스로 버림받은 영역으로 간주해 버리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의 진짜 민낯을 연구해 보면 어떨런지요? 의외로 그 회피해 버리고 싶은 문제의 영역이 '문제'가 아닌 진정한 '축복'일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무가치한 것을 우리의 삶 중심에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검증해 봅시다. 버려진 채 방치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말입니다.

www.sellacare.com SEARCH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 심장, 뇌 혈전 용해 |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 **혈 관 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 졸 증**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산성		중성				알카리성
						셀라케어
3.5	6.0	7.0	8.5	9.0	9.5	10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웍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랜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옆	714.333.7866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6503.0191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대선 후보들 공약한 '성평등'에 '동성애'도 포함?

"후천성 강조하는 'gender'는 매우 포괄적 의미"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평등'을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것이 혹시 동성애 내지 트랜스젠더 등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누가, 어떤 공약했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10대 공약' 중 여성 분야에서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대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조직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를 위한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평등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이미 "성소수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을 약속했다.

반면 주요 후보들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 '10대 공약'에서 별도로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왜 우려하나?

흔히 영어 'gender equality'로 번역하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즉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하자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기에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대전시는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등의 문구가 삽입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명칭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성소수자 인권 단체 등은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에 성평등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성차별적 행위"라며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외면하고, 성평등 정책 대상에서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과 조례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에 열린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도 동성애 반대 운동가들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 삽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성평등'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다.

◈왜 '양성'(兩性)이 아닌가?

일단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여성 공약을 담당했던 이성은 여성학 박사는 '성평등'이 의미하는 것에 성소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헌법 제11조를 개정하겠다고 한 것도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하겠다는 것이지 성소수자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문재인 후보도 성평등 공약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이 '양성평등'에 비해 보다 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이 같은 공약을 내건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자칫 상황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게 일각의 우려다.



최근 열렸던 '19대 대통령 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도 한 참석자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영어의 'gender'는 주로 '사회학적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성'을 뜻하는 'sex'와 구별된다"며 "따라서 'gender equality'로 번역하는 '성평등'은 얼마든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도 "성평등이라고 하면 대개 성별 때문에 차별하지 말자는, 매우 단순한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젠더(gender)라는 용어는 페미니즘과 관계된 것으로, 그 기본 사상은 인간의 성(性)이 선천적이지 않고 교육과 환경 등에 따른 후천적이라는 것이다. 동성애 등도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며 "이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다분히 여성들의 표를 의식한 행위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와 같은 언어적 혼란이 초래하는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에 대선 후보들이 이와 관련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 김모 씨, 북한 당국에 억류

억류 인사, 평양과기대에서도 한 달 가르친 적 있어

최근 평양을 방문했던 한국계 미국인이 지난 금요일인 21일, 북한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3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 김모 씨가 북한 방문일정을 마치고 21일 평양 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중 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50대 후반의 김 씨는 과거 연변과기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북한지원 활동을 벌였으며, 이번에도 대북 지원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해 한 달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과 방송 신문들도 잇따라 그의 체포 소식을 전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미국 시민 한 사람이 체포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영사적 문제를 대신하고 있다.

CNN 방송도 주평양 스웨덴 대사관의 마티나 아베르그 부대사와의 통화를 인용해 "김 씨가 평양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며, 대사관은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평양과기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김 씨가 부인과 함께 중국행 항공기로 출국하려 했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평양과기대 박찬모 명예총장의 말을 인용해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이 토니 킴(Tony Kim), 한국명 김상덕(Kim Sang-duk) 씨이며, 중국 연변과기대에서도 가르쳤고 평양과기대에서 회계학을 한 달 간 가르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또 "김 교수의 체포는 평양과기대 교직과는 상관 없는 일이고, 김 교수는 북한 고아원을 지원하는 등 평양과기대 외의 활동들에 관여해 왔다"며 "그가 속히 풀려나길 바라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왜 김 씨를 체포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탈북민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AFP통신에 "북한 당국이 아직 김 교수 체포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 동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김정은 참수 군사작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시점에 미국 시민을 인질로 잡는 일은 북한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현재 김 씨 외에도 버지니아대 학생인 오토 웜비어 씨와 한국계 김동철 씨 등 미국인 두 명이 더 체포돼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통일선교연합 비전 선포와 통일의료선교네트워크 결성식 참석자 단체사진

통일 앞당기기 위해 북한 보건의료 지원 시작

한국통일선교연합, 의료선교 위해 18개 단체와 MOU

한국통일선교연합(KUM, Korea Unification Mission)이 통일 전과 후 북한에 가장 절실한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시작으로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 사역에 앞장서기로 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 가나의집 3층 파이디온홀에서 한국통일선교연합은 비전 선포와 통일의료선교네트워크 결성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14개 국내 기독교 보건의료단체 및 4개 일반 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초청돼 통일의료선교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통일의료선교에 한국교회와 기독 의료인의 역량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통일선교연합 이사장 이성희 연동교회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환영인사에서 "한국통일선교연합은 많은 북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서 앞으로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려는 단체"라며 "특별히 북한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관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하지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첫 단추를 끼우면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협력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의료선교네트워크 준비위원장 박상은 장로는 "통일 관련 기독교 복음주의 보건의료단체들이 나름대로 활동해 왔으나, 최근 10년간 대북 의료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침체되고 힘을 잃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귀한 모임을 만들어 격려하고 동역할 기회를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사는 한국통일선교연합 상임이사 오치용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 부회장)의 사회로 박상은 장로의 보건의료단체 및 대표 소개, 한국통일선교연합 부이사장 황수원 목사의 개회기도, 이성희 이사장의 환영인사, 사무총장 김형석 목사의 취지설명, 이성희 이사장의 비전선포 및 통일의료선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각 단체장과의 MOU 체결 등으로 진행됐다.

김형석 사무총장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옛날 평양 선교의 성공 요인을 배울 필요가 있다"며 "돌짝밭 같은 평양에서 가장 먼저 쟁기로 개간한 것은 병원이었고, 그다음 교회가 파종을 했고, 그 후 학교가 생겼다"며 북한에서의 의료보건사역의 사명과 의의를 강조했다. 또 한국통일선교연합의 비전으로 통일기도운동 및 영친운동, 북한교회세우기운동 및 사랑마을(의료시설) 조성, 통일선교사 양성 및 훈련원 운영, 통일선교 전략 연구 및 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성희 이사장은 비전 선포에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과제인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으며, 북한교회세우기운동본부 준비위원장 김중석 목사, 통일의료선교네트워크 준비위원장 박상은 장로에게 각각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한국통일선교연합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 통일 이룩하자'는 목표로 2016년 11월 24일 설립된 교계 연합기관으로, 이성희 목사, 김승규 목사, 전명구 목사, 이영훈 목사, 이종승 목사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과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크리스천 전문인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①통일선교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연합을 이루고 ②통일선교단체와 교단의 통일선교위원회 간의 소통을 통해 현장사역과 교회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③범교계적인 네트워크로 통일선교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설립 취지로 삼고 있다.

한편, 통일의료선교네트워크에는 보건의료단체로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문용자 이사장), 하나반도의료연합(경쾌수 회장), 세브란스병원 연세의료선교센터(박진용 소장), 전주예수병원(윤용순 과장), 통일과 간호(김희숙 회장), 의료선교협회(손덕식 목사, 강범석 목사), 글로벌케어(고영희 공동대표), 세계간호기독재단(이은숙 이사), 로제타홀 기념사업회(김윤환 교수), 샘병원(박상원 원장), 누가회 사회부/북녘사랑, 한국기독의사회(박상은 수석부회장), 장기려기념사업회(이건오 상임이사), 영락교회 의료선교부 등이, 일반단체로는 한반도평화연구원(전우택), 복음의전함(고정민), 미라클미션(박두남), 한국장로교총연합(오치용 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지희 기자

국내 원로목회자 1만2천여 명 복지대책 시급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 25일 오전 서울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국민일보와 함께 진행하는 '원로목회자 복지증진을 위한 캠페인'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한 원로목회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어려운 원로목회자들을 위한 쉼터와 생활필수품 제공, 사회활동참여 지원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출정식은 전국의 원로목회자들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다짐의 시간과 원로목회자들의 복지증진을 한국교회에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 소명을 다하신 원로목회자의 평생목회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출정식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원로목회자에 대한 관심과 교회의 협조가 함께 하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재단이사 김진옥 목사는 "평생 설교하며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원로목회자가 1만 2,000여명에 달한다"며 "하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접은 소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대표회장 이주태 장로는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섬김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원로목회자들의 기도가 이 어려운 위기 속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끌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 측은 오는 7월 4일 장충체육관에서 '종교개혁500주년 기념 8천만 민족복음화 원로목회자대성회'를 개최해 원로목회자 및 성도 5,000여명과 함께 국가의 안정과 한국교회의 부흥 등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교회맛집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한국학교 토 오전10:00 ~오후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화 오전11:00 ~오후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A,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 (310) 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권오균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묵상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예장 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제53회기 춘계정기노회가 24일 뉴욕선민교회에서 열렸다.

통합 후 은혜 이어가는 예장 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예장 백석과 대신의 교단통합에 따라 지난해 첫 통합노회를 진행했던 예장 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가 24일 오후 3시 뉴욕선민교회(담임 함성은 목사)에서 제53회기 춘계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에 임준환 목사를 추대하면서 통합 이후의 은혜로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예장 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는 지난해 예장 백석 뉴욕노회와 미주동부노회, 예장 대신 뉴욕노회 3개 노회가 통합된 것으로, 향후 3년간 노회별로 돌아가면서 노회장을 맡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4일 진행된 정기노회에서는 순번에 따라 임준환 목사(필라 코람데오교회)를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으며 차기 노회장을 맡게될 부노회장에는 강철홍 목사(리디머교회)를 선출했다.

또 이밖에 신임임원으로는 서기 한준희 목사(뉴욕성원장로교회), 회계 주효식 목사(뉴욕정원교회), 회록서기 홍지철 목사(뉴저지 뉴교회)가 임명됐다.

조지아와 텍사스 지역 노회원들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춘계정기노회에서는 미주동부노회 규칙이 통과되면서 통합된 노회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추게 됐다. 규칙에 따르면 예장 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는 미국 동부와 중부, 남부를 비롯 캐나다 중부 동부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사무실은 당회기의 노회장 목사 교회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다.

세칙에서는 노회원의 자격과 관련, 한국의 백석과 대신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출신 목사로 구성하되 미주지역 이민교회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 타교단 신학교 출신 목사 및 여목사 가입은 필요시 소정의 편목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목사 안수를 받고 7년 안에는 타교단으로 이명할 수 없다.

타주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노회원들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되는 등 노회의 활동 구역이 넓어진 만큼의 노회원을 배려한 조항도 관심을 모은다.

또 이번 노회에서는 신입회원으로 서문도 목사, 장규준 목사, 이규자 목사가 가입을 완료하고 노회원들에게 인사했다.

거리상의 이유로 노회장을 고사할 뜻도 밝혔던 임준환 신임 노회장은 추대 후 인사말을 통해 "순번대로 노회장을 해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노회원들의 뜻에 따라 노회장직을 맡게 됐다"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노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힘든 점을 감내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회원들이 많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직전 노회장 함성은 목사는 "1년동안 부족하고 연약한데 노회장으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타주 지역을 여러번 다니면서 노회장으로써 최선을 다해 섬겨보려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은 줄 안다"면서 "미주동부노회가 은혜로운 통합의 모범을 보이는 노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노회에서는 개회예배 설교자로 예장대신 증경총회장인 김재규 목사(캄보디아장로회신학교 총장)가 참석해 말씀을 전했다. 김재규 목사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는 RCA 연합부흥성회 강사로 뉴욕을 방문했다.

김재규 목사는 '스승이냐 아버지냐'(고전4:14-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 떳떳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목회는 바울처럼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잉태의 수고를 거듭하는 자들이 되자"고 전했다.



故 정인수 목사의 1주기 추모예배

"마지막까지 열정 다한 삶을 따라"

'故 정인수 목사의 1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17일(월) 오후 8시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교회와 선교에 한평생 헌신하며 살았던 故 정인수 목사의 삶을 기리기 위해 5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고인을 함께 추억했다.

심우진 연합장로교회 임시당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추모예배는 연합성가대의 찬양, 설교, 추모 동영상 상영, 추모사, 당회원 특별찬송, 유가족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애틀랜타중앙교회 한병철 목사는 '인생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청년 같은 열정을 지닌 정 목사의 갑작스런 죽음은 신비로 여길 수 밖에 없다. '복음에 대해 열정적이며, 이제 막 환갑을 지난 분이 왜 떠나셔야 하셨는가'라는 의문은 알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라며 "고인을 추모하면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신비로움을 주셨다. 오늘의 추모예배가 서글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정 목사의 가르침일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하나님 품에 있는 고인은 목회를 통해 애틀랜타 지역과 선교지, 후배 목회자들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과 열매로 인해 주님의 칭찬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라며 소망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했다.

이어 상영된 '추모 1주기 섬김의 20년'이란 제목의 추모 동영상에는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의 첫 번째 터커 성전을 세우면서부터 소천 전까지, 열정 가득한 목회와 선교에 헌신했던 모습이 담겨, 생전 고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윤수영 기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페이스북

5만 기독교인들의 고향이었던 이곳

프랭클린 그래함, 이라크 카라코시 교회 방문

최근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부활절을 맞아 이라크 카라코시에 다녀왔던 경험을 나누었다.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카라코시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다.

그래함 목사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파괴되고 불에 탄 한 교회를 방문했었다. 잿더미와 쓰레기로 덮힌 그곳에서 놀랍게도 우리 자선단체(사마리안의 지갑-편집자 주)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에게 보냈던 신발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지역 어딘가에 살고 있던 아동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였다. 오늘 이 상자를 받아볼 아이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당시를 회상했다.

그래함 목사는 "불에 탄 교회에서 IS 대원들이 십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한 권총과 총상을 입은 강대상을 발견했다. IS 대원들은 교회의 첨탑까지 폭파시켰다"면서 "이곳은 과거 5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의 고향이었으나 지난 2014년 이후 약 7개 가정만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적힌 성경 조각을 발견했다"면서 "그분은 오늘날의 세상을 향해 여전히 이같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IS가 이라크 북부 지역의 수많은 교회를 종교 경찰들을 위한 훈련소나 심지어 고문실로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함 목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짧은 영상에도 IS가 파괴한 니네베 평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이라크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마리안의 지갑' 의료팀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공개됐다.

이들은 모술 인근의 야전 병원에서 부상 당한 시민들, 이라크 주도의 연합군, 심지어 IS 대원들까지 돌보는 중이었다.

병원 담당자인 엘리어트 텐페니(Elliott Tenpenny) 박사는 지난 1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곳 야전병원에서 봉사하기로 한 의사들은 최소 3주간 더 있어야 하는데 이보다 오랜 기간 봉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영상에서 그래함 목사는 "사마리안의 지갑의 야전병원이 특별한 이유는 봉사자들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갖고 이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복음주의 · 오순절 기독교인 박해 극심

전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 때문

복음주의 및 오순절 기독교인들이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더 심각한 박해의 위험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전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 때문이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노트르담(Notre Dame) 대학교의 '가이사의 칼 아래'(Under Caesar's Sword)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박해에 대한 응답'(In Response to Persecution)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음주의 및 오순절 기독교인들은 '복음화와 개종의 필요성'을 '언어적이고 긴급하며 때로는 드라마틱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핍박을 무릅쓰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러시아의 경우, 냉전 시대의 종말 이후 선교사들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극적으로 늘어났으며, 박해 역시 강력해졌다.

복음주의 및 오순절 기독교의 탄압은 특히 이란에서 심각하다. 때문에 이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무슬림 문화 속에서 되도록 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대중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러한 가운데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순교자라는 단어는 '증인'(witness)이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됐으며, 기독교의 자유를 온전히 표현하고,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가톨릭과 개신교 지도자들이 공산정권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와의 연합을 거부하고 수십년 간 옥살이를 하고, 파키스탄의 사바즈 바티가 순교를 무릅쓰고 박해받는 소수인들을 대변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 모두의 위엄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쿠르드어 방언 성경 번역 완료

두 기독교 선교 단체가 거의 30년 동안의 작업 끝에 쿠르드어 방언으로 성경 번역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마쳤다. 콜로라도에 본부를 둔 비블리카와 영국에 기반을 둔 처치 미션 소사이어티(CMS)는 이번 달 초에 성경 번역을 시작했으며, 그 텍스트는 쿠르드어의 소라니 방언이다.

최근 CMS의 국제선교 책임자인 폴 탁스터(Paul Thaxter)는 프리미어 크리스천 라디오(Premier Christian Radio)와의 인터뷰 내용을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에게 전달했다.

탁스터는 "약 600만 명의 소라니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소라니 번역을 쿠르드족 기독교인의 '미래 세대'에게 유익할 "세대 간 선물"로 묘사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확고해지고 성경 없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비블리카의 글로벌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담당 부사장인 조나단 콜은 크리스천포스트에 "중동의 지속적인 불안정이 프로젝트의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는 "계속되는 불안정과 폭력으로 인해 진전이 느려졌다"고 했다.

비블리카(Biblica)의 칼 모엘러(Carl Moeller) 사장은 "이 번역본의 공개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며 "놀라운 업적"이라고 성명서에서 밝히고 "이 번역은 수년 간의 많은 기도와 번역팀의 희생의 결과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신실함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쿠르드족에게 훌륭한 축복이 될 것이며 쿠르드족 신자가 신앙을 키우고 쿠르드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빨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주일학교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토요일 6:30 A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KOBE PEARL
HELEN AIKO

고베펄 '윌셔 보석마켓' 그랜드오픈 기념

진주, 홍산호비드 2만불 경품대잔치

2등 상품
바로크
비드





이벤트 하나!

2만불경품대잔치 상품내역안내

1등: 홍산호 비드 목걸이 2명 ($5000 상당)
2등: 바로크 천연 진주 비드 목걸이(2명) $2500 상당
3등: 2줄 진주 비드 목걸이(2명) $2000 상당
4등: 고베펄 핵진주 브로치 (10명) $100 상당

1. 고베펄 행사기간 중 제품 구매고객 전원 자동 응모됩니다.
2. 행사 마지막날 경품추첨이 이루어집니다.
3. 당첨자발표는 고베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4. 상품 수령 기한은 60일이며 우편 또는 당첨자 직접 방문 픽업 가능합니다.



최대 50%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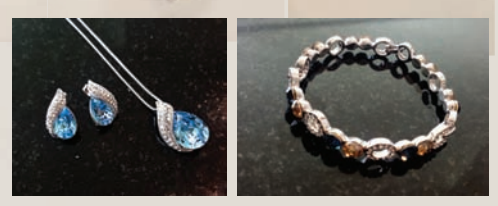
일본공법 한국세공

1등 상품
천연 홍산호 비드



Mother's Day
고베펄 칼라스톤 특별전





$99 부터
$599까지

마더스데이를 맞아 한국세공의 부담없는 가격대의 선물용 합성 칼라스톤 특별 기획전이펼쳐집니다.
500여점의 다양한 디자인의 고베펄 칼라스톤 신제품을 고베펄 윌셔 보석 마켓 에서 만나보세요!

이벤트 둘!

300불이상 구매고객
선착순 30분께
두줄 진주목걸이 증정



두줄바로크
진주목걸이
($799불상당)

선물용으로 좋은 핵진주 반지 , 브로치

고베펄이 마련한 경제적인 가격대의 일본산
핵진주 브로치와 반지 귀걸이등 마더스데이
2017년 신제품 최고의 선물!



헬렌아이코 혼수용
프리미엄 아코야진주



바로크 진주
BAROQUE PEARL
진주의 여왕

바로크진주 프리미엄 헬렌아이코
컬렉션 3종 2종 세트 및 반지 펜던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2017년
신제품 전시 판매합니다.







고베펄 윌셔 보석 마켓 그랜드오픈 행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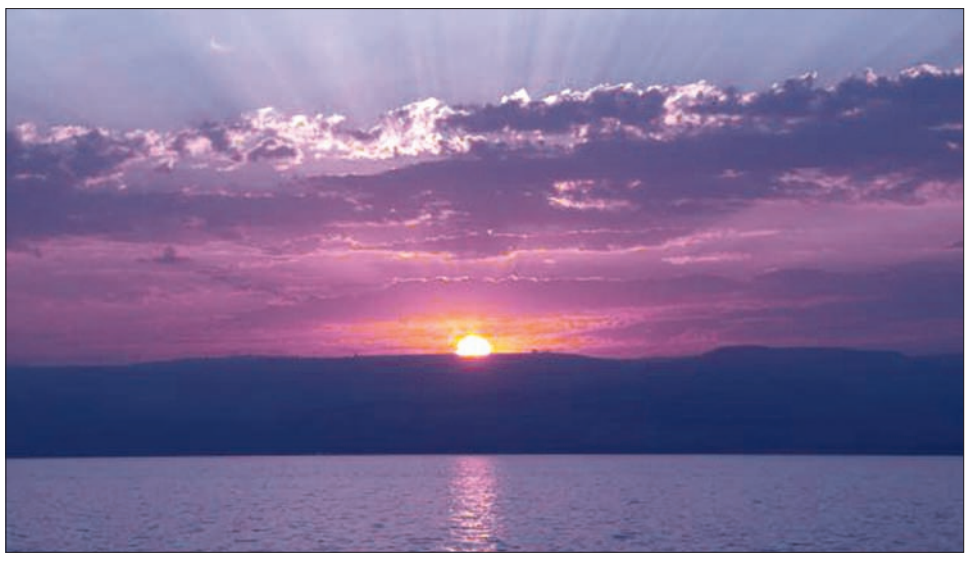
1차 : 2017년 4월 17일(월) – 22일(토)까지
2차: 2017년 4월 24일(월) – 29일(토)까지
3055 Wilshire Bl #450 LA CA 90010
(윌셔와 웨스트몰랜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빌딩 4층)

문의전화:
323.999.1558
www.kobepearl.com

고베펄 윌셔 보석마켓 영업시간 안내
월요일 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은 쉽니다.

각종신용카드 환영합니다.

무료 파킹





갈릴리 바다의 일출 모습과 낮의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0)

생명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의 아름다움

갈릴리 바다의 주변은 항상 푸르고 아름다워 마치 언제나 에덴동산에 있는 것같은 느낌을 준다. 화산암과 화산재로 이루어진 토양은 채소와 과일 농사와 각종 꽃이 자라는데 최적의 환경이다.

사막(아라바 광야)의 긴 여정을 마치고 벳산을 지나면서 땅 색깔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요르단 계곡의 푸른 모습과 길르앗 산지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면(요단강의 작음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한다. 하지만 보이는 것 너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감격의 눈물이 솟구치기도 한다.)

어찌하든 이제 요단강을 건너니 감람나무가 열병식을 하듯 가로수로 심겨져 있고 곳곳마다 바나나 나무숲이 보인다.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면 광야에서의 갈증과 목마름이 한 순간에 날아가고 바다같이 넓은 호수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다가온다. 눈이 부시고 시리게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노래를 부른다. "갈릴리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흘려간 그 옛날에 주님을 싣고서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가소 그리운 옛날이여 그리운 주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갈릴리에 취해 저절로 노래가 나오나 보다. 시가 나오나 보다. 감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정녕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이다.



필자가 먹어본 베드로 생선

갈릴리 바다의 당당함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 산에서 기원한 세닐, 단, 바니야스(가이샤라 빌립보)의 샘물이 상류 요단강이 되어 그 물이 흘러들어 형성된 내륙 호수이다. 이곳에서 다시 하류 요단강을 통해 사해로 들어간다. 전 국민의 50% 이상이 사용하고 농지의 70%가 갈릴리 바다의 물을 공급받고 있다.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갈릴리는 바다냐 아니면 호수냐 하는 것이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호수라는 단어가 없었고 지중해는 큰 바다, 사해는 염해, 그리고 갈릴리는 작은 바다라 부른 탓에 내륙 호수인 갈릴리도, 사해도 바다라 부르고 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민물이라 호수라 불러야 하지만 갈매기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작지만 민물과 썰물이 있다. 그리고 척박한 광야에 이만한 호수가 없으니 당당히 바다라 해도 손색이 없다. 동편에 있는 모래해변이나 우기에 몰아치는 파도, 안개 낀 수평선 너머 까마득한 육지를 바라보노라면 바다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의 모습

우선 구약성경에 갈릴리를 보면 요단강 지역과 가나안 지역의 북부를 보통 갈릴리라 하였다.(수20:7, 왕상9:11, 왕하15:29, 대상6:26)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스불론(수19:10-16), 아셀(수19:32-39)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 차지하였지만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였던 곳이기도 하다.(삿1:30-33) 후에 단 지파가 서쪽 지중해 방면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거처를 정하기도 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시대에는 중요한 병거성과 북방의 수비수 역할을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갈릴리 바다는 긴네렛(수13:27) 게네사렛(눅5:1), 디베랴(요6:1)이라 불렸고 예수님 당시에 이곳에 10개 정도의 포구(가버나움, 막달라, 디베랴, 거라사, 게네사렛, 벳새다, 타브가 등)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북쪽 중간 지대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중요한 활동무대가 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부르심(막1:17), 제자들의 부름(마4:18-22), 오병이어의 기적(마5:29-39), 풍랑을 잔잔케 하심(마8:26), 바다 위로 걸어오심(마14:22, 요6:16-21)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심(요21장)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 중 갈릴리 바다를 기반으로 한 지역에 살았던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다.(마4:18,행1:11) 갈릴리 바다는 아침에는 잔잔한 수면과 동쪽 골란 고원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동쪽 엔게브 키브츠 쪽에서 서쪽 아르벨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보고 난 후 티베리야 시내의 불빛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다. 갈릴리 바다의 전체 모습을 보려면 북쪽 벳사다에서 골란 고원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에서 보는 것과 동편 골란 고원 위에서 보는 것, 그리고 서쪽 아르벨 산꼭대기에서 보는 것이 있다. 어느 자리에서 보든 갈릴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감추어지기는 어렵다. 마치 하프처럼 생겼다 하여 긴네렛(하프, 바이올린)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붙은 것이고 이후에 성경에 붙은 이름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한 도시(포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게네사렛, 가버나움, 디베랴는 당시의 도시 이름이다.

갈릴리 바다의 추억

갈릴리 바다의 바람은 아주 특별하다. 서쪽으로 와디 하맘(Wadi Hamam)과 벳 네토파(Beit Netopha) 계곡이 열려있고 북동쪽으로는 골란 고원과 헤르몬 산이 있어 여름에는 주위의 높은 지역의 찬 공기와 낮은 곳의 바다의 더운 공기가 만나 바다 가운데 강한 서풍이 불어와 높은 파도를 만들기도 한다. 특히 겨울에는 골란 고원에서 내려오는 강한 동풍으로 인해 3m가 넘는 파도가 쳐서 물고기를 해안으로 날려 보내기도 한다.

면적 70 제곱킬로미터에 어종이 20여 종이 있고 연중 강우량이 500mm-700mm라고 하는 갈릴리는 연중 꽃 동네, 새 동네이기도 하다. 많은 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이곳저곳에 피어있고 우기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비롯하여 수십 종의 꽃들이 만발하여 예수님의 교훈이 생각나기도 한다. 아침이나 황혼 무렵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선상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행복할 것이다.

필자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손님들이 오시면 같이 갈릴리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갈릴리에 가면 무엇보다 배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럿이 가면 배의 선장이 태극기를 걸어주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애국가를 부른 적도 많이 있고, 또 선원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점심에 먹다 남은 피타빵을 조각내어 배 위에서 던지면 갈매기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지 그 받아먹는 모습이 재미있어 선객들이 빵을 던지면 아름다운 비행으로 그 빵을 가져가는 갈매기를 볼 수 있다.

어떤 때는 배 위에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실 분을 찾네요. 믿음으로 걸어가실래요"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로 바다 위로 뛰어내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참 오래 전 이야기네요. 지금은 예수님 안 와요" 하는 사람도 만난다.

필자에겐 참 많은 추억이 간직되어 있는 갈릴리 바다이다. 오늘날 갈릴리 바다에서 가끔은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주님 손잡고 걸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갈릴리 어느 호숫가에서 먹은 베드로 생선은 별미 중 별미였다. 〈계속〉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라미라다 가든 꽃집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 이장렬 칼럼

회복의 복음 (요21:9-13)



이 장 렬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신약학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제자들을 거듭 찾아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번 대면한 베드로와 동료들은 함께 철야 고기잡이 작업에 나선다. 그러나 노동 무가치의 경험만 남는 듯했다. 밤새 허탕만 쳤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미 디베랴 호수 제자들 곁에 와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적 포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그제야 호숫가에 서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명하신 분이 주님인 줄 깨닫고 이 사실을 베드로에 일러 준다. 열정과 특심이 남다른 베드로는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은 맘에 서둘러 겉옷을 두른 후, 동료들과 포획한 물고기들을 뒤로 한 채 바로 물속으로 몸을 던진다.

뭍으로 올라온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피워 놓은 숯불을 발견한다. 주님께서 친히 아침밥상을 차리고 계셨음을 본다. 오늘 아침 메뉴는 숯불구이 생선과 떡이다!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공허함과 허탈감에 짓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한 마디로 축제판이다! 주님께서 이미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고(21:9), 또 이제 막 기적적으로 포획한 생선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신다(21:10).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움직인다. 고기 잡는 일에도 앞장섰고, 주님을 발견한 후 단 일초라도 예수님을 빨리 만나려고 물속에 몸을 바로 던진 베드로가 이번에도 선수를 친다. 베드로는 큰 물고기들로 가득한 그물을 뭍으로 옮긴다. 너무 신기했는지 한 마리씩 세어본다. 하나, 둘, 셋, … 열, 스물, 서른…, 백, … 모두 153마리나 된다. 그것도 큰놈들로 말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밤새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걸려들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면, 결실하고 수확하는 풍성한 삶을 누린다. 때로는 주님 따름으로 인해 더 어려움과 핍박을 겪지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갈6:9 참조).

그런데 사실 기적적 포획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 큰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걸렸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그물은 일반적으로 목화로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쉽게 찢어졌고 종종 수선해야만 했다. 원래 저자 요한도 그물을 수선하던 중에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막 1:19 참조). 원래 잘 찢어지는 편인 목화 그물이 어떻게 이 큰 물고기 153마리를 견뎠을까? 아무리 봐도 신적 보존에 대한 암시가 느껴진다(요21:18-19 참조).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던 디베랴 호수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가 단숨에 포획된 것은 분명 기적이다. 그러나 부실한 목화 그물이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의 중량을 견뎌낸 것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이다.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한다.

"이같이 [큰 물고기가]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21:11)"

처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부르실 때도 기적적 포획의 역사가 있었다(눅 5:1-11). 그러나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물이 이처럼 성할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21:15-19 참조)

암 말기 환자가 기도를 통해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고통이 극심한 삶 가운데도 암에 걸리지 않는 것 역시 기적이다. 차가 폐차될 만큼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한 해 교통사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는 이처럼 "기적"을 논할 때 보존의 은혜보다는 즉각적 치유와 회복에 편향적으로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즉각적 치유와 회복만 기적이 아니다. 무겁고 버거운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역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서 이중의 기적을 경험했다. 엄청난 포획이 기적이듯 특별한 보존 역시 기적이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는 저자 요한의 목격담은 연약하고 흠 많고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잠시 멈추어 묵상하도록 독자들을 초청한다(시편 46:10 참조).

사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해 보이지만, 지난 일은 더 선명하게 보인다. 지난날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도우심 없었다면 벌써 쓰러지고 자빠져서 못 일어날 일들이 여럿 있었다. 삶이 늘 쉽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날 붙잡아 주시고 보존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 사실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다르지 않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영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지금보다 더 충성되고 신실한 오늘과 내일을 믿고 기대하지만, 그렇다 해도 나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날까진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날 붙잡아 주시고 보존해 주신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도 연약한 나를 그렇게 지켜 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내일도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것이다. 요한의 목격담은 사실 나 자신의 고백이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거듭 제자들을 다시 찾는 부활 예수의 은혜로운 방문으로(21:1, 14 참조) 이제 제자들 가운데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는다.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21:12)"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거듭 들었고, 눈으로 주목했으며, 손으로 만졌다(참조 요일1:1; 요20:19-23, 20:24-29; 21:1-14). 다소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들의 스승 예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이의 연속성에 대한 확신이 이제 제자들 안에 뿌리내렸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아침 식사로 직접 초대하신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21:12)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밥상을 친히 챙겨주신다. 이 밥상은 아마도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동안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듯하다. 왜냐면 베드로가 가서 주님의 도움으로 잡은 생선을 가져오기에 앞서 이미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21:9-11). 이 특별한 날의 아침 메뉴는 떡과 생선이다(21:13).

떡과 생선의 조합은 자연스럽게 오병이어 사건을 회상시킨다(요6:1-14).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요한복음 21장의 아침 식사 모두 디베랴 바닷가에서 벌어진 일인데, 사실 신약성경에서 "디베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 두 사건뿐이다(요6:1 & 23; 21:1).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풍성히 먹여주신 사건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났다는 저자 요한의 기록은 자연스럽게 이날의 아침 식사를 오병이어의 기적과 중첩시킨다. 부활 주님과 함께 하는 식사는 오병이어적 잔치다.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의 공동체로 모여 성령을 그 가운데 모시고 사랑과 연합의 식사를 나눌 때마다 그 식사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잔치가 된다.

남자만 오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다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군중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던 주님께서 이날 아침 미리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신 데다가 제자들이 먹고 충분히 남도록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까지 포획하게 하셨다. 밤새 노동에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실 것이다.(물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 역시 풍성히 공급하신다.

주님께서는 잠시 후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사역을 하도록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베드로를 먹여 주신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21:13)"

오병이어 사건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군중을 먹이셨다(요6:11; 눅9:16 및 공관복음 병행구). 그러나 부활 후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 주신 이 자리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신다. 제자들은 사역자의 모드로 아니라 부모의 돌봄과 공급함을 경험하는 어린아이가 되어 주께서 친히 먹여주심을 경험한다 (참조: 요21:5 ["얘들아"]). 베드로와 친구 제자들은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운 공급을 경험한다. 우리의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운 공급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도 그리고 지속될 수도 없다.(껍데기는 유지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속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날 아침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듯, 우리 역시 먼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받은 먹은 후에야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우리는 부활의 몸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과도하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부활의 몸이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유리되고 분리된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말이다. 아울러 "영성(spirituality)" 그리고 "영적(spiritual)" 같은 개념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이원론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말씀과 기도는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물론 옳다!), 일상의 삶은 열등하고 심지어 죄악된 실체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의 몸을 입으셨으되 결코 과도하게 영적이시지(hyper-spiritual) 않다. 부활 후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주신 주님은 밤샘 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친히 아침 밥상을 차려 주신다. "내가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너희 하찮은 끼닛거리 챙기는 일이나 신경 쓰게 생겼니?"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내가 영광의 몸을 입었는데 너희 일상의 일들이나 챙겨주게 생겼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필요와 고민을 친히 헤아리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바로 거기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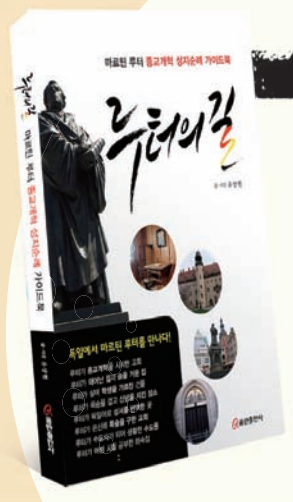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던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시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죄를 그리고 세상 죄를 대신 지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으신 후에도 겸손히 제자들의 밥상을 챙겨 주시는 섬김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자라는 가르침을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친히 보여 주신다(막10: 35-45 참조).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부활 예수가 그런 분이라면, 필시 참된 제자도란 일상의 삶에서 하루하루 그분의 사랑의 섬김을 좇아가는 것이리라.

영적인 삶이란 결코 일상을 회피하거나 적대시하는 게 아니다. 영적인 삶이란 매일 삶의 한복판에서 크고 작은 도전들을 직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짝씩 앞으로 내딛는 것이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님처럼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겸손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리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요21:12-13)" 〈계속〉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지순례 안내서





루터의 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성지순례 가이드북
루터는 '오직 성서'를 부르짖었다.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기도 하다.
루터가 걸었던 그 특별한 길을 뒤따르는 당신에게
이 책은 길의 방향을 알려주고 길에 새겨진 발자국을 설명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특별한 길에
남은 루터의 흔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순례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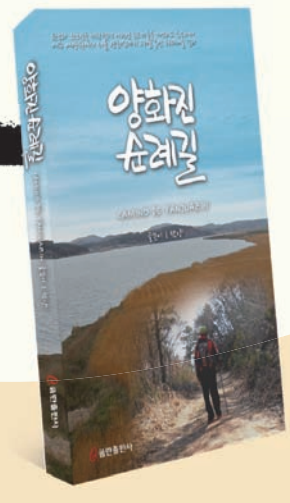
유상현 지음 / 240면 / 15,000원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필자는 오클라호마 대학 교수로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
딸 루시고 판사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자료와 사진을 정리하였고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기독교 성지 연구와
생생한 역사가 담긴 현장을 컬러 사진으로 담고 있기에
성지 순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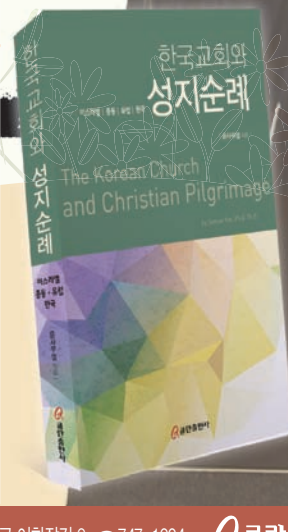
탁은숙 지음 / 328면 / 20,000원



양화진 순례길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했던 이방인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여수 애양원에서 서울 양화진까지 27일 동안 680km를 걸었다.
혼자서 걸어간 그 길은 삶을 되돌아보는 깨우침의 시간이었고,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기행문이자 선교사들의 사역 기록이기도 한 이 책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과도 같은 한국의 순례길 여정을 담았다.

담양 지음 / 328면 / 20,000원



한국교회와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영적 재충전,
주님과의 사랑 회복, 치유의 은혜의 기회가 된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장소를 찾아가서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그곳의 기후와 분위기를 직접 느끼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
이스라엘, 중동, 유럽, 한국을 다니며 조사 연구한 것으로
성지순례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실려 있다.

윤사무엘 지음 / 496면 / 19,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747-1004 쿰란출판사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이춘복 | 쿰란 | 311쪽



구속사적 성경 읽기와 해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기독교인의 헌금생활, 기도생활, 선교와 전도 방법, 종의 도리와 봉사생활 등에 대해 설명해 준다. 뿐만 아니라 국가관과 애국하는 길, 행복한 결혼생활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전통과 관습 때문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미래 영적 인재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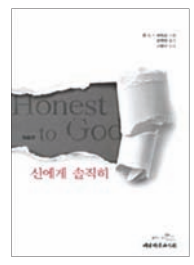
최현식 | 생명의말씀사 | 240쪽



변화된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의 영적 인재가 갖춰야 하는 조건과 이에 맞는 기독교적 훈련을 설명한다. 특히 미래의 인재는 청소년이나 청년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들을 포함해 신중년(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까지 확대돼야 함을 주장한다. 미래에는 이 3세대의 조화와 변화, 가능성에 따라 사회와 교회와 가정이 변화될 것이다.

신에게 솔직히

존 A. T. 로빈슨 | 현영학 역 | 264쪽



신약학자이자 영국 성공회 주교가 썼으며, 1963년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 저자는 하늘 위 어딘가에 신이 존재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전통적 기독교 신앙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범주, 즉 신이나 초자연적인 것 등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야 신앙 가문 세우기

유재필| 두란노 | 256쪽



여전히 믿음 없는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따라 맹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저자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제시한다. 이 복이 현재를 사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넘치게 부어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이야기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비룡소, 만 3-4세용 '사각사각 그림책' 시리즈 런칭

어린이책 출판사 비룡소(대표 박상희)에서 만 3-4세 유아를 위한 '사각사각 그림책' 시리즈를 선보인다.

비룡소 측은 "국내 그림책 시장에서 놀이 기능이 있는 책(촉감책, 사운드북, 플랩북 등)은 0-3세 영유아를, 일반 종이 그림책은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각사각 그림책' 시리즈는 놀이책에서 종이책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만 3-4세 유아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각사각 그림책' 시리즈는 '쉽고 명확한 문장', '적절한 양의 텍스트', '단순하고 유쾌한 그림', '인지·정서적 발달을 돕는 주제'를 기조로 한다.

만 3세는 언어 능력이 눈에 띄게 발달하고 상상력과 호기심이 자라나는 시기로, 뛰어난 언어와 뒷받침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은 '행복한 책 읽기'의 시작에 도움을 준다. 특히 수 세기, 색깔, 자연, 말놀이, 생활 습관, 대인 관계 등 인지·정서적 발달을 위한 기능적 접근으로 폭넓은 독서 체험이 가능하다.

'사각사각 그림책' 시리즈 첫 책인 〈쉬잇! 다 생각이 있다고〉는 2015년 에즈라 잭 키츠 상을 받은 수작으로, 다채로운 색감과 반복되는 말놀이가 매력적인 그림책이다.

네 명의 친구들이 늦은 밤 숲 속을 한 마리 새를 잡기 위해 한 걸음



쉬잇! 다 생각이 있다고
크리스 호튼 지음 | 노은정 옮김
비룡소 | 248쪽

한 걸음, 살금살금 발을 내딛는다. 고요하고 숨 막히는 분위기를 깨는 건 제일 뒤에 서 있던 키가 가장 작은 친구다. 새를 발견하고, 누군가는 반갑게 인사하고, 나머지가 주의를 주고, 결국 새를 놓치는 단순한 장면이 반복된다. 아이들은 단순한 반복구조를 사랑하며, "쉬잇, 쉬잇!" 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 그림책은 선명한 색채와 감각적인 디자인, 독보적인 캐릭터가 인상적인 그림책이다. 타임 매거진 'DESIGN 100'에 선정되기도 한 그림책 작가 크리스 호튼은 기발하고 세련된 그래픽 기법으로 새로운 그림책 세계를 창조했다. 종이를 큼지막하게 오리고 붙인 콜라주 일러스트와 뭉뚝한 글씨체로 쓰인 텍스트의 조화가 전에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내뿜는다.

성별, 나이, 인종을 알 수 없도록 단순화된 캐릭터들도 흥미롭다. 몸짓과 대사의 미묘한 차이 말고는 캐릭터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보는 이들은 캐릭터의 생김새와 성격을 자유롭게 상상하며 읽을 수 있다.

2015년 에즈라 잭 키츠 상 수상으로 널리 알려진 〈쉬잇! 다 생각이 있다고〉는 전 세계 14개국(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일본, 중국 외 5개국)에 수출됐다. 이 외에도 2014 아일랜드 문학상 '올해의 어린이책' 부문 수상, 2014 일러스트레이터협회 '올해의 어린이책' 선정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대웅 기자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교훈 강박증 떨쳐내고 기독 소설이 호응 얻으려면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14] 영화로도 개봉된 소설 〈오두막〉

제 방은 아주 작습니다. 작은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글을 씁니다. 이 방에서 분노에 울기도 하고 기쁨에 웃기도 하며, 상처도 받고 치유도 일어납니다. 저의 모든 희로애락이 이 작은 방에 있습니다.

주인공 맥은 연쇄살인범에게 딸 미시를 납치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두막에서 찢어지고 피에 젖은 미시의 빨간 드레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눈이 많이 내린 날 오두막에서 '파파'라는 이름으로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파파는 아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라 놀라면서 반신반의하다 오두막으로 갑니다.

이 책 『오두막』이 눈에 띄는 건 표지의 이미지도 신비로운 데다, 띠지에 붙은 각종 극찬의 문구 때문입니다. '미국 700만 독자를 감동시킨 사랑 이야기!', '49주 연속 〈뉴욕타임스〉 1위에 머물고 있는 치유의 메시지!'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하지만, 이런 찬사의 글에 호기심이 가더라도 현혹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이런 찬사와 추천의 글은 읽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읽게 되거나 별로 감동스럽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건가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입견 없이 읽기 위해선, 모든 찬사와 추천의 글은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띠지에 적힌 찬사대로 놀라운 책인가? 그렇지 않은가? 서서히 밝히겠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공간은 제목처럼 '오두막'입니다. 오두막이 갖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두막은 주인공의 딸이 살해된 장소이면서, 주인공이 회심하고 치유받게 된 곳입니다. 가장 끔찍한 곳이 주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라는 설정 자체가 시사해 주는 바는,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은 오두막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판타지를 통해 치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중심 효과로 판타지를 사용하면서, 판타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죽는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판타지를 차용하여 현실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의 오두막인 것은 문제 앞에서



오두막
윌리엄 폴 영 | 한은경 역
세계사 | 432쪽

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판타지-현실의 장소가 오두막인 것은,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곳임과 동시에 치유를 주는 곳임을 말합니다. 지금 이곳이 현실이자 판타지이고, 아픔이자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 내가 거하는 이곳이 아픔을 주는 현실이 될 수 있고, 치유를 주는 판타지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나(의 시각)'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①현실-판타지-②현실로 이어질 때, '판타지를 겪은 ②현실'은 처음의 ①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치유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의 현실은 ①의 슬프고 괴로운 현실로 남지만, 판타지를 통해 즉,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겪고 난 후의 현실은 ②의 회복과 평안의 현실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앙적인 주제 의식을 명민한 구도에 넣음으로써, 이질감없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기독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관습'입니다. 오두막이 판타지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주인공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명의 인물로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백인 남성, 하나님은 흑인 여성으로, 예수님은 중동 남성, 성령님은 아시아 여성으로 등장시키는데, 너무 익숙한 설정입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도 신에게 불만을 갖는 짐 캐리는 백인 남성이고, 전지전능한 신의 역은 모건 프리먼이라는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저자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했겠지만, 너무 안일하고 간편하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독자들을 아우르기 위한 상업적인 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목과 간단한 줄거리를 통해 이야기의 방향이 짐작 가능합니다. 처음의 살인 사건도 놀랍고 이후의 과정에 대해 궁금하긴 하지만, 결국은 예상했던 대로 갑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건, 전체 431쪽에서 주인공이 살해 장소인 오두막에 다시 가서 그 오두막이 판타지의 공간으로 바뀌어 치유의 과정을 겪는 시점이 121쪽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두막 한 공간에서 300쪽 이상의 분량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려면 이야기의 밀도가 아주 높아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내 딸이 죽을 때 왜 신은 가만히 있었나?"란 질문을 하는데, 신은 답을 내리고는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고 말을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는 '관습'은 기독 소설이라서 어떻게든 '메시지'를 주려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메시지 강박증'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반 소설에서는 여운을 준다든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등 '열린 결말'을 주어 가독력을 높이는데 비해, 유독 기독 소설은 '성경적인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 사람처럼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 한다는 점입니다.

'메시지 강박증'이 있는 소설의 단점은 위에서 밝혔듯 이야기의 흐름이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읽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는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이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까 궁금해서이며, 책을 읽는 이유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입니다.

기독 소설이 더 호응이 있으려면 '기독'과 '소설'의 비율을 3:7 정도로 가지고 가서, 메시지(기독)가 아닌 이야기(소설)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읽어야 한다면, 지금 거하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이 현실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소설의 메시지가 주는 힘이 크다는 점일 겁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나와 개봉했습니다.

기독 소설이 영화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은, 기독 소설만의 장점이고 영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리서나 강해서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라도 읽어본다면 좋은 취미생활이고, 유익한 독서가 될 겁니다.

서평가 이성구

너무나 도덕적인 잠언에서 '義' 개념을 찾아내다

크리스찬북뉴스 추천도서



잠언의 의 개념 연구
유선명 | 새물결플러스
306쪽

'잠언(箴言)'은 우리말 뜻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이다. 'Proverb'에 대한 우리말은 '속담(俗談)'이다. '속담'은 서민 생활에 내려오는 어휘와 풍속들이 있는데 '잠언'은 그렇지 않아, '속담'이 아닌 '바늘, 교훈하다 잠(箴)'으로 '잠언'으로 번역한 것 같다.

우리는 잠언을 청소년 교육용,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의 교본 등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유선명은 잠언에서 '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을 시도했다. 그것도 박사학위 논문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연구 과정을 걸쳐서 정립한 개념이다.

〈잠언의 의 개념 연구〉의 추천자들 추천을 읽으면 매우 함축적인 찬사들이 눈을 끌기도 한다. 류호준 교수는 저자가 제시하는 언어유희를 소개했다. righteous(의)가 right와 wise의 합성어라는 것을 소개하며 저자의 통찰력을 칭찬했다. 그리고 잠언에서 '의' 개념을 도출하는 독특한 시도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의' 개념은 성경 해석 전체와 사회 전반을 기독교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핵심 개념이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의' 개념을 반드시 정립해야 한다. 유선명은 우리에게 그러한 중요한 개념 탐구를 선물했다.

〈잠언의 의 개념 연구〉는 저술 도서가 아니고 번역 도서이다. 저자가 저술하고(Righteousness in the Book of Proverbs. 박사논문, 2012) 저자가 번역한, 독특한 산물이다. 저자는 '번역이 반역'이라는 일반 원리에, 저자가 저자의 글을 번역하는 '반역'에 참여한다는 어려운 번역 과정을 술회하기도 했다.

저자는 구약성경에서 '의' 개념은 윤리적 측면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전제하면서, 구원론적 이신칭의 개념과 갈등에 대한 배치에 대해 고민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선지서가 아닌 지혜문학에서 '의' 개념을 도출하는 방식은 독특한 시도이다.

저자는 잠언을 '의'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격언이라고 제안했다. 잠언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의인도 모든 가치를 '행동'하는 형태로 제시한다. '의인'이 '의'를 만드는 도구가 '지혜'가 된다.

저자는 '의' 개념에서 확정해야 할 가치를 '부(富)'로 간주하고, 부에 대한 잠언 본문을 분석했다. 저자의 결론은 '더 낫다'는 잠언이 독특하게 훈련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잠언의 심오한 교육 기법을 '부'라는 주제로 명료하게 드러냈다.

〈잠언의 의 개념 연구〉를 통해, 성경에서 '의' 개념 탐구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갖는 계기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박사학위 논문으로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익숙하기 전에는 서툰 것이다. 익숙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접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러한 학문 서적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익숙하게 접한다면 한국교회 수준은 세계적이 되고, 탁월한 신학 저술도 발표될 것이다. 서평자가 갖는 큰 소원은 한국어로 쓴 박사논문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많은 한국교회 안에 학위논문과 전문서적을 광범위하게 읽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식 소비자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수요에 부응하는 좋은 지식 공급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잠언의 의 개념 연구〉는 잠언 전체를 해부한 매우 의미 있는 훈련 과정이다. 연구자의 길을 따라 훈련한다면, 독자들도 잠언과 많은 성경 본문들을 즐겁게 해부하면서 풍성한 의미에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 www.christianitydaily.com | THURSDAY, April 27, 2017 Vol. 98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s Deliberate Issue of Homosexuality at Annual National Gathering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 clergy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gathered from all over the nation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United Methodists Annual Convocation, which is taking place in Los Angeles from April 24 to 27.

A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UMC) is considering whether it will change its stance on homosexuality, Korean American pastors and churches discussed how they have been dealing with that very issue during the annual Korean Association of United Methodists (KAUM) Annual Convocation, which is taking place from April 24 to 27 in Los Angeles.

Currently, the UMC does not formally accept homosexuality. Under the denomination's bylaws, known as the Book of Discipline, ordination of those in same-sex relationships is forbidden, and clergy are prohibited from conducting same-sex marriages.

The denomination was set to discuss and decide whether it will change its stance in 2016 at its last General Conference, a gathering of almost 1,000 delegates that usually convenes every four years and i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n the UMC. Instead, the conference opted to postpone the decision and formed a 32-member commission called the Commission on a Way Forward, solely dedicated to exploring the UMC's Book of Discipline, deliberating what options would be best for the UMC, and giving recommendations to the UMC's Council of Bishops.

A special General Conference will convene in February of 2019, at which time delegates will only discuss the issue of homosexuality, and act on a report given by the UMC's Council of Bishops.

The KAUM Annual Convocation, themed 'Building a Community in the Promised Land,' featured a session on Tuesday morning with a four-member panel discussing the various stances that the UMC could decide to take, and the ways that the panelists and their churches have been discussing, or not discussing, the issue of homosexuality.

"This has become an issue that, even if we wanted to avoid it, we can no longer avoid," said Paul Hak-Soon Chang,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United Methodist Council on Korean Ministries, who was the first panelist to speak. "Eventually, the denomination must make a decision."

Many of the panelists, all of whom are pastors, said some members of their congregations have approached them first, asking what their positions are on homosexuality.

Samuel Hong, the senior pastor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anta Clara Valley, said he openly share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denomination during Sunday announcements.

Hong said he is taking a careful approach, and told his congregation that "even if we make our decision after the UMC makes its decision, it won't be too late."

The issue compelled some members of Chicago Life United Methodist Church, led by Mi-Sook Park, to take a strong stance first, eventually leading Park to host an open forum on the topic.

"I openly asked them, 'Who thinks homosexuality is a sin? Who doesn't think so?' And we had a time of open discussion," Park said. But in her congregation, most, if not all, of the members believe that practicing homosexuality is a sin, she said.

Kwang Tae Kim, the president of KAUM, said the panel discussion focused on homosexuality this year because of its potential impact on Korean churches.

"The issue of homosexuality may affect Korean churches the most," Kim said, "and we must consider what strategy we will take moving forward."

Meanwhile, the Commission on a Way Forward includes one Korean American member, Myungrae Kim Lee, who was present at the KAUM convocation. Lee said the commission has been working hard to seek the best outcome.

"Such a diverse crowd of people have come together, but it has been so hard to reach a consensus," Lee said.

Lee added that, as an Asian living in the U.S., she has been aiming to voice the concerns of minority ethnic groups living within America, and urging the commission to "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ethnic churches in the U.S." As an international denomination, the UMC has annual conferences abroad, including in the Philippines, Europe, and Africa.

The convocation is taking place at the Hilton Los Angeles Airport and at Los Angeles United Methodist Church, and features worship sessions, plenary sessions, and small group sessions on topics such as pastoring in cross-cultural contexts, women in ministry, and ministering to youth and young adults.

Korean American Arrested in North Korea

Tony Kim, who taught at PUST for one month, was arrested when trying to leave the country

A Korean American professor has been arrested and detained in North Korea, the Swedish Embassy in the reclusive country confirmed on Sunday.

"We have been informed and can confirm that there has been a detention of a U.S. citizen Saturday morning local," Martina Aberg, the deputy head of mission for the Swedish Embassy in North Korea, told CNN.

The Swedish government takes care of matters related to the U.S. in North Korea, as the latter two countries do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

"He was prevented from getting on the flight out of Pyongyang. We don't comment further than this."

Tony Kim, a 58-year-old professor who had been in Pyongyang for a month teaching accounting at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 was stopped at the airport as he was trying to leave the country, according to Park Chan-Mo, chancellor of PUST.

Kim is also a former professor of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ST), located in Jilin, China.

The reasons for his detainment are unclear.

Park additionally told Reuters news agency that "some officials at PUST told [Park] his arrest was not related to his work at PUST."

"He had been involved with some other activities outside PUST such as helping an orphanage," he said.

The school, known to have Christian roots, also issued a statement saying that "life on campus and the teaching at PUST is continuing as normal."

With Park's detainment, the total number of U.S. citizens detained in North Korea is now three. A university student named Otto Warmbier who was sentenced to 15 years of hard labor, and a Korean-born U.S. citizen named Kim Dong Chul who was sentenced to 10 years of hard labor, are the other two citizens who are still in custody in North Korea.

Vision Care Services to Offer Free Eye Screenings and Surgeries for Los Angeles Residents

Vision Care Service, an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and Hwarang Leo Club, will be hosting its eighth Free Eye Camp on April 29 at the Los Angeles Korean Consulate General, from 9 AM to 1 PM.

The event offers free services to all Koreans, regardless of their status. Vision Care Service will also provide free cataract surgeries for those with low income who have been found to have cataracts from screening results.

Those who wish to receive the free eye screenings do not need to make appointments. The first 100 to arrive will be served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For the free surgery services, individuals could submit a request following the eye screening via mail, including their church information and recommendations.

"Ophthalmology is generally not included in basic health care, so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unable to go to the hospital even when they are experiencing discomfort or pain in their eyes," said Chang Y. Lee, the chariman of Vision Care Service West.

"This event was prepared for those who have been unable to receive simple eye screenings because of a lack of insurance," Lee added. "We plan to provide surgeries free of charge for those whose screenings show that they have cataracts."



Volunteers help patients at a previous Vision Care Service Free Eye Camp event in Los Angeles. (Photo: Vision Care Service)

Sarah Park, the president of the youth volunteer organization Hwarang Leo Club, urged many to come and participate in the event, saying that helpful seminars on health will also be offered.

Two ophthalmologists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event, and volunteer nurses and youth will be serving patients at the event as well.

Vision Care West has been providing free eye screenings in Koreatown, Los Angeles, since 2012, and has provided free cataract surgeries for 70 individuals.

Dr. Thom Rainer: Five Ways Pastors Can Reverse Negative Sentiments in Church

"There is so much negativity in our church. What can we do?"

Some form of that question has come my way many times. The negativity may be in the form of murmuring. Sometimes it is more overt criticism and personal attacks. Yet in other cases, it is a more ill-defined atmosphere of defeat and despair.

What can a pastor or church leader do to help move the congregation more positively? After hearing from pastors and church leaders, I can offer five suggested paths that have proved fruitful in other churches.

1. Call for a time of prayer. "Our congregation was inwardly focused. We seemed to be constantly sniping at one another. I asked twenty people in the church to join me for thirty days of prayer, including fasting every seventh day. It was amazing to see attitudes shift so positively so quickly."

2. Lead a major ministry or service effort in the community. "We 'adopted' fifty first responders in our community. One family would seek to care for a first responder by praying for him or her, asking how we could help, or even babysitting their children. We saw our congregation move from an inward focus to an outward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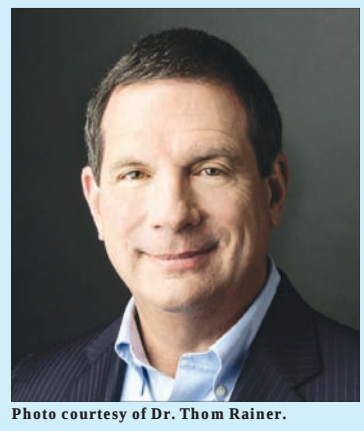
3. Ask for forgiveness. "We were in the doldrums. It was evident when we had a vote to call a staff member and he was barely affirmed. When I announced the vote to the congregation the next Sunday, I took responsibility for not leading well, and asked the church to forgive me. I really believe that moment was a turning point in our congregation."

4. Get a fresh perspective. "I called it 'the congregational blahs.' There was no major crisis in the church, just a sense that we were barely treading water. Another pastor told me about an affordable coaching ministry. It not only gave me a fresh perspective, it give me a fresh start in the church. The members followed my leadership with a reinvigorated attitude."

5. Make a commitment to stay. "Every time our church hit a bump, or when we would go through some times of struggles, I would think about leaving. No, I didn't announce it to the church, but my attitude was not one of commitment. In my prayer time one morning, I asked God to give me a long-term perspective in the church. It was an amazing turnaround for me. From that point, I didn't let the crisis or the problem of the moment tempt me to think of greener pastures. I had a renewed attitude and the congregation followed."

Those are five stories of leaders who led their churches out of the doldrums to a renewed and reinvigorated spirit. Often the leaders saw the need to make adjustments with their own attitudes and leadership.

I know there are other stories in churches out there. I would love to hear yours.


Photo courtesy of Dr. Thom Rainer.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April 17,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Thom.S.Rainer.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Americans Have Positive Thoughts About the Bible, But Don't Read It Much, Study Shows



Though most Americans expressed positive thoughts on the Bible, not many said they read much of it, according to a LifeWay Research study. (Photo: Freely Photos)

While most Americans generally think positively of the Bible, not many have actually read much of it, according to a new survey released on Tuesday.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LifeWay Research, 20 percent of Americans have read the entire Bible at least once. Twelve percent said they read almost all of it, and 15 percent said they read at least half of it.

But a greater proportion have read bits and pieces of the Bible, the study showed. Thirty percent said they have read several passages or stories, and 13 percent said they've only read a few sentences.

Ten percent said they haven't read it at all.

Among those who have read the Bible at least a little bit, the greatest proportion said they have approached personal Bible reading by looking things up when they have a need (30 percent). A little more than a quarter (27 percent) said they have read the Bible to look up verses or sections suggested by others.

Meanwhile, a little less than a quarter (22 percent) said they read the Bible every day, systematically.

When asked what terms describe the Bible, most associated the holy book with positive terms. More than half of Americans believe the Bible is a "good source of morals" (52 percent). Many said that it is "helpful today" (37 percent), "true" (36 percent), and "life-changing" (35 percent).

There are various reasons that Americans don't read the Bible more, the study also found. The largest proportion — more than a quarter — said they don't read it because they don't prioritize it (27 percent). The next most common reason was that they don't have time (15 percent).

How are the pastors encouraging people to read the Bible more? Most do so by reminding people in their sermons (86 percent) and gifting Bibles to those who need one (86 percent).

Many also offer a printed Bible-reading plan (64 percent), an approach most likely to be taken by pastors of churches with 250 or more congregants (80 percent).

Meanwhile, younger adults read less of the Bible than the elder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ose between 18 to 24 years of age were the most likely to say they haven't read the Bible at all (25 percent), and the least likely to say they read almost all of it (2 percent).

Males are also more likely than females to say that they do not read the Bible on their own (39 percent, as opposed to 31 percent).



About 1,000 gathered at a march in Minneapolis on February 27, 2017 to urge the city to expand sanctuary city protections for immigrants. (Photo: Fibonacci Blue/Flickr/CC)

Trump Executive Order on Sanctuary Cities Temporarily Blocked by Federal Judge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to prohibit 'sanctuary cities' was blocked by a federal judge on Tuesday, temporarily nullifying Trump's threat to cut off federal funding to such jurisdictions.

Trump had issued an executive order on January 25 allowing the attorney general to withhold federal grants from sanctuary cities.

Sanctuary cities, as they are called, limit local police officers from cooperating with federal immigration officials.

The cities of Santa Clara and San Francisco filed suit against the Trump administration, calling the executive order unconstitutional. San Francisco's lawyers argued that enforcement of the executive order could result in a loss of some $2 billion per year for the city.

In his ruling on Tuesday, U.S. District Judge William Orrick III placed an injunction against the executive order.

"The Constitution vests the spending power in Congress, not the President," said Judge Orrick, adding that the executive order "cannot constitutionally place new conditions on federal funds."

"Federal funding that bears no meaningful relationship to immigration enforcement cannot be threatened merely because a jurisdiction chooses an immigration enforcement strategy of which the President disapproves," he stated.

The Trump administration expressed it would appeal the decision, with Trump himself tweeting early on Wednesday morning, "See you in the Supreme Court!"

"This case is yet one more example of egregious overreach by a single, unelected district judge," the White House also said in a statement.

Meanwhile, Dennis Herrera, the city attorney for San Francisco, called the executive order an overreach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is is why we have courts — to halt the overreach of a president and an attorney general who either don't understand the Constitution or chose to ignore it," Herrera said.

Santa Clara's Supervisor Cindy Chavez called the decision a "win for the neediest people in our nation."

Judge Orrick's decision does not completely prohibit the federal government from denying funds to cities. Other than Trump's executive order, a law already exists prohibiting local governments from preventing law enforcement officers from providing status information of individuals to the federal government.

Orrick wrote that the temporary ruling "does not impact the Government's ability to use lawful means to enforce existing conditions of federal grants," and that it further does not "restrict the Secretary from developing regulations or preparing guidance on designating a jurisdiction as a 'sanctuary jurisdiction.'"

The Justice Department said in a statement that it would comply with all existing laws in regards to sanctuary cities.

Jakarta's First Christian Governor Concedes Re-Election Loss

Basuki 'Ahok' Purnama: 'Everything is in God's hands ... Everything has a purpose'

The first Christian governor of the Indonesian capital Jakarta conceded his loss to re-election after a majority of the votes were counted on April 19, which showed he was at least 10 percentage points behind his rival.

In the count of some 80 percent of the votes, incumbent Jakarta Governor Basuki 'Ahok' Purnama came in at 42 percent, trailing behind his rival Anies Baswedan at 58 percent.

Purnama, who is a double minority as a Christian and an ethnic Chinese, said after the early vote count was completed that he will continue to invest his efforts on improving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in Jakarta.

"We have another six months," Purnama was quoted as saying by USA Today. "We will work fast and well to accomplish our homework and our promises. Congratulations to Anies."

Baswedan emphasized the need for unity in his statement, saying, "We celebrate diversity ... We are all ready to work together again."

Purnama is currently embroiled in a lawsuit, which experts say likely affected the election outcome. He was accused of blaspheming and insulting the Quran in a video that went viral. Purnama has repeatedly denied the allegations, and said the video was edited.

While a conviction of blasphemy comes with a maximum sentence of five years in prison, on Thursday, prosecutors recommended two years' probation instead. The official ruling against him comes in May, as do the official election results.

According to a CBN report, Purnama has remained positive throughout the process, and has expressed hopes to return to Indonesian politics.

"Ahok is very positive," reported Lucille Talusan of CBN. "He says that everything is in God's hands and that everything has a purpose."

"Even if he is under trial for what is happening in his life, he believes that one day God is going to bring him back to his calling," Talusan added. "The first thing in his heart is to serve his people in Indonesia."

Indonesia is the largest Muslim nation in the world, with a population of some 260 million Muslims making up almost 90 percent of the country.

Baswedan will assume office in October.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a.org

아름다운 **대화기술**

"말은 많은데 대화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에서 대화 부재와 대화의 비효능으로 인하여 겪는 부작용을 자주 보고 듣습니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상호 교류하는데 한 사람이 본래대로의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본래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알려는 기능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많은 자살, 우리 주위에 만연하는 Stress, 여러 가지 신체적이지 않은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 문제에 따르는 육체적 질병 등 이 모든 것이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대화 기술의 권위자이신 여천기 박사님과 여명미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반인반과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오니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주제

1. 하나님께 진 빚, 아름다운 대화기술
2. 장벽을 허무는 대화기술
3. 예수님 식 대화 기술
4. 대화 기술은 인간의 능력
5. 하나님이 쓰시는 실력자
6. 옥토마음 가꾸기
7. 기타 자기 관리
8. 대화문을 닫게 하는 언행습관
9. 우리세대의 대화 정서
10. 듣는 기술, 경청(귀담아 듣는) 기술
11. 대화습관
12. 말하기 기술
13. 심정 알아주기, 공감기술
14. "나 전달법" 내 마음(심정) 전달기술
15. 너 때문에 메시지(You-Message)
16. 인간관계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법 가이드
17. 심정표현과 감정표 사용
18. 지혜로운 질문기술
19. 격려하는 기술과 칭찬
20. 분노 표현 기술 Expression of Anger



여천기 박사
CHUN KEE RYU, M.D

- TEACHING APPOINTMENTS
  *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UCI Medical School.
  *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in Residence, UCLA School of Medicine.
  * Instructor in Psychiatry, Chicago Medical School.
- COMMUNITY SERVICE AND ACTIVITIES
  * Provide extensive psychiatric education through lectures and presentations to Korean community groups, including churches, LIONS, women's groups, alumni groups, and senior citizen groups.
- HOSPITAL PRIVILEGES
  * Western Medical Center, Anaheim, California.
  * St. Joseph Hospital, Orange, California.
  * Western Medical Center, Santa Ana, California.
  * Santa Ana Psychiatric Hospital, Santa Ana, California.
  * Fountain Valley Hospital, Fountain Valley, California.



여(김)명미 박사
Myun g Mi Ryu, M.D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68년 도미
- 미국 가정주치의 1977/ 임상병리학 전문의
- 미국캘리포니아 푸른초장의 집설립: 이사장/소장 1993- 2000
- 가주신학대학원, 에반겔리아 대학 강의
- 미주 복음방송 GBC / Radio Seoul 1650AM Guest Speaker
- 미국캘리포니아 ABC상담 대화교육원 설립 2009, 대표
- 저서 "이런대화가 삶을 바꾼다(공저)
- 상담 교육가/ 초청강사
- 뇌 정신질환과 정신건강(Mental Illness Ministry)교육자
- 미국캘리포니아 NAMI Family to Family 강사
- 대화강사 훈련강사

▪대화 강좌_ 참가비 $30

날짜 : 2017년 5월 16일(화)
시간 : 오전 10:00 ~오후 1:00(주부, 평신도 누구나)
오후 2:00 ~ 오후 5:00(목회자, 사역자, 신학생 등)

▪지도자 양육 대화 강좌 - 20시간 수강을 마치신 분께 대화지도자 수료증 발급

참가비 : $200(교재비, 점심식사 포함)
일시(1차)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2차) : 2017년 6월 1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3차) : 2017년 6월 8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4차)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장소 :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등록 및 문의 : T.(213)434-1170



주관 : ABC 상담 대화 교육원 **주최 : 기독일보**

아름다운 **대화기술**